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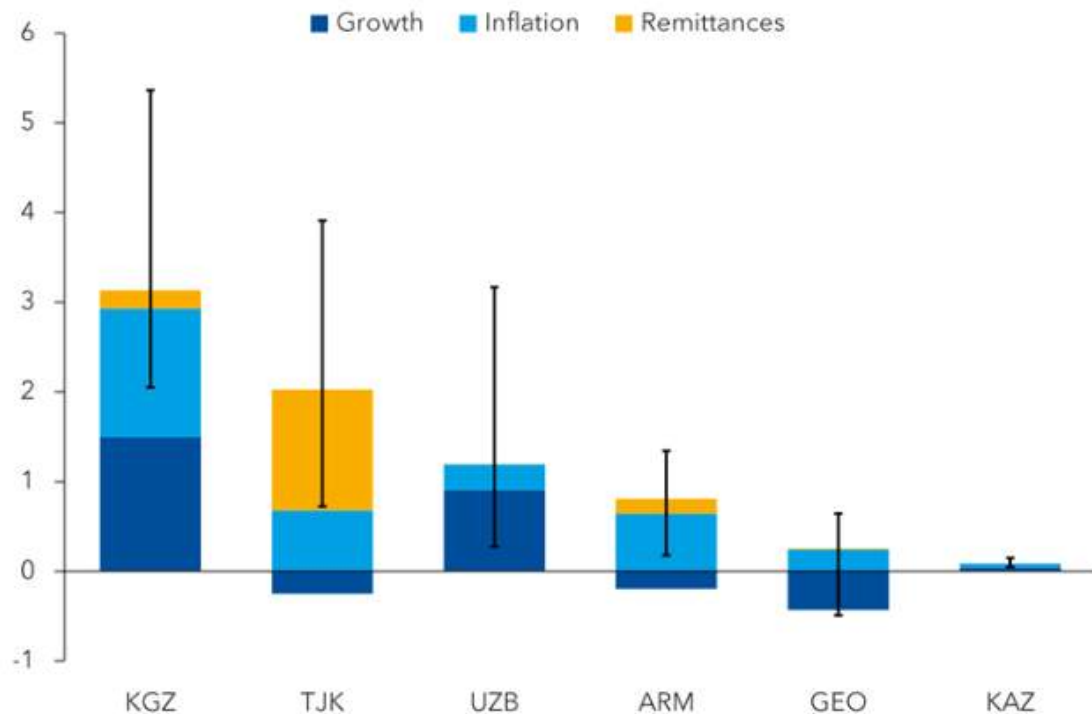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의 경제 정책 방향과 시사점

IMF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긴밀한 경제적 유대로 인해 전쟁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역내 국가의 경제활동은 소득 급증과 이 지역으로의 재정적 유입을 포함하여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로 인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¹⁾.

Poverty risks

High food price inflation and a potential decline in remittances following the war risk increasing poverty rates by 2023.

(change in poverty rates and contributions, percentage points)



Sources: IMF staff calculations.

Note: Poverty is measured at the \$3.65 purchasing power parity US dollars per day.

Lower (upper) end of vertical lines represent a positive (negative) scenario where real GDP per capita is assumed to be higher (lower) by 1 percent and relative food prices are assumed to be lower (higher) by 5 percent relative to WEO baseline projections.

IMF

이들 역내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카자흐스탄의 경제의 미친 영향은 가장

1) "Russia's War in Ukraine Could Raise Poverty in Caucasus, Central Asia,"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11/29/cf-russias-war-in-ukraine-could-raise-poverty-in-caucasus-and-central-asia> (검색일: 2023.01.30.)

미비하며 이탈 러시아인들의 소비 및 송금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 서방 및 러시아 기업의 카자흐스탄으로 이전 등 투자 증가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처보다는 2022년 1월 소요 사태(이하 '1월 사태')에 대한 정치 및 경제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1월 사태 이후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경제개혁 과정에서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와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 비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경제성장률	4.1	3.1	7.4	5.7	6.2	7.0	9.2	8.0	4.7	-2.5
인플레이션	8.4	20.7	10.0	12.3	11.2	14.7	8.0	4.2	8.4	11.9
환율 (1\$당, 연말 기준)	431.6 7	462. 65	1083 7.66	1122 5.46	84.7 586	85.6 800	11.3 000	10.2 024	74.2 9	70.3 4

자료: 각국 통계청 및 중앙은행

카자흐스탄은 2022년 1월 사태를 기점으로 정치 및 경제의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중간 소득 국가 함정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1월 사태 직후인 1월 21일 및 3월 19일 국내 대기업 대표들과 면담에서 안정적인 사회경제 발전, 국민의 공정한 소득분배, 기회의 균등, 실질적인 복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였으며 후속 조치들을 유관 부처에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2022년 9월 1일 의회에서 정기 국정 연설을 통해 발표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밝힌 1월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향후 주요 정책 및 개혁 방향과 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요 조치들을 분석하여 한국-카자흐스탄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 2022년 1월 소요사태 이후 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9월 1일 의회에서 국정 연설을 통해 '공정한 국가, 하나의 국가, 번영하는 사회'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카자흐스탄'(Новый Казахстан) 표방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1월 소요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치 및 경제활동의 독점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경제, 산업, 복지·교육, 행정 및 사법 시스템 등 5개 분야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²⁾.

2) 이하의 내용은 특별한 각주가 없는 한 토카예프 대통령이 2022년 9월 1일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Послани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Касым-Жомарта Ток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http://president.kz/ru/poslanie-glavy-gosudarstva-kasym-zhomarta-tokaeva-narodu-kazah>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현재 카자흐스탄 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높은 원자재 의존도, 낮은 노동 생산성, 불충분한 혁신 수준, 불균등한 소득분배 등을 지적하였으며, 해결 방안으로 거시경제 안정화, 경제 다변화,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발전, 인적자본 개발, 법의 지배 보장 등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카자흐스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새로운 경제 정책 분야의 우선순위로 민간기업의 이니셔티브 장려, 즉 국가자본주의 탈피 및 정부의 과도한 경제 개입 지양, 경쟁의 촉진, 즉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 보장, 그리고 국민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우선순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가격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경제의 지속적인 탈독점화를 위한 제도 마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예측 가능한 조세정책, 투명한 관세행정을 위한 세금 및 세관 정보 시스템의 통합, 예산 정책 모델 개혁,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PPP(민관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 기업의 대출 자원 부족 해결, 기업에게 생산의 기본 요소인 토지의 투명한 분배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실물 부문의 발전 분야에서는 지하자원 개발에 투자유치를 위한 입법 및 절차 단순화, 경제특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 등 투자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작업 필요, 정부의 경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부펀드 '삼룩카지나'(Samruk-Kazyna)의 개혁,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국가의 운송 잠재력 강화, 국가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분야임에도 부패의 온상이 된 건설 부문 개혁,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개발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 분야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부(Wealth)의 공정한 분배와 평등한 기회 제공이 개혁의 핵심 가치라고 하면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중요한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분야 개혁, 국가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시스템의 개혁,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 연금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 인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의 재능있는 전문가, 특히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성공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민정책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넷째, 행정시스템의 개편(Перезагрузка) 분야에서는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국가 행정 시스템의 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민들은 공허한 선언이나 장밋빛 미래에 대한 끝없는 청사진에 지쳤고 정부 기관의 약속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부처의 분권화,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공무원 선발 및 해고 제도 개편 등 '새로운 카자흐스탄'에 맞는 행정 개혁을 지시하였다.

다섯째, 법과 질서 분야에서는 법치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의 신속한 개선, 법 집행기관의 개혁 및 공공의 안전 강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개혁의 추진력을 유지하고 모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국가기관의 포괄적인 재설정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강력한 대통령, 영향력 있는 의회, 책임 있는 정부"라는 기본 공식에 따라 정치적 현대화를 시행하고 있고 개혁은 계속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공정한 카자흐스탄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새로운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2022년 가을 조기 대선 및 2023년 상반기 조선 총선을 제안하였다. 이후 2022년 9월

17일부로 7년 단임제로의 대통령 임기 변경에 대한 헌법수정안이 통과되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0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81.31%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재신임을 얻었으며 통치 기반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조기 총선은 2023년 3월 19일 예정되어 있다.

2022년 9월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새로운 경제 정책	○ 산업의 투자 매력도 감소, 상품 부족 및 수입의존을 초래하는 정부의 가격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 단, 비경쟁시장, 즉 독점 기업에 대한 요금 통제는 지속하되 독점의 이윤 제한과 인프라 투자 보장 간의 균형을 고려한 요금 정책 필요 ○ 경제의 지속적인 탈독점화를 위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 - 입법으로 '대기업 집단'(Conglomerate)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제적 집중'에 대한 허가 필요 - 독점금지법을 통해 독점 기업의 활동 규제 필요 ○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직결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조세정책을 위한 세법 개정 - 조세 행정의 개혁 - 세금 관리의 디지털화 - 세금 인센티브 효과성 제고 - 경제 부문별 차별화된 세율 적용 - 기술 현대화 및 R&D 관련 기업의 법인세 감면 또는 인하 - 탈세 유혹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세금 제도의 간소화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의적인 법인 분할 방지 -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요율과 간단한 절차의 소매세 적용 확대 - 고가의 부동산 및 자동차 구매시 '사치세' 도입 검토 등 ○ 투명한 관세 행정을 위한 세금 및 세관 정보 시스템의 통합 - 국경에 통합 관세 관리 메커니즘 도입, '단일 창구' 원칙에 따른 관세 신고 센터 운영 ○ '예산 관리'에서 '결과 관리'로 예산 정책 모델 개혁을 위한 새로운 예산법 도입 - 예산법에 예산 계획 및 집행시 준수를 위한 한도 규정 강화 - 국부펀드의 비효율적 재원 지출 관행 금지 - 미집행 예산의 차기 년도 이월 허용 및 자금반환의 비효율적 관행 제거 - 준공공기관을 포함한 예산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 - 조세 수입의 지방 이전 지속 등 ○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수백, 수천 개의 하위 법 조항 및 규정의 조정 대신 새로운 간단 명확한 업무 규정 제정

	- 금융 지원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정부 지원 수령자 결정의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 - 새로운 통합 정부 조달 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국가 조달법 제정 ○ PPP(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 - 투명하고 경쟁 기반의 계약 체결을 위한 법 제정 ○ 기업의 대출 자원 부족 해결 -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실물 부문에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대출 제공 방안 마련 ○ 기업에게 생산의 기본 요소인 토지의 투명한 분배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 지방 및 인구 밀집 지역에 토지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 토지 유무 조사 및 기업에 공개
실물 부문(산업) 발전	○ 투자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작업 - 지하자원 개발에 투자유치를 위한 입법 및 절차 단순화, 지질 정보 통합데이터은행 구축 - 산업 부문 투자 매력도 제고 지시, 특히, 경제특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 해외 기업의 카자흐스탄으로 유치(relocation)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경제특구에 투자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의 차별화된 특혜 제공 ○ 정부의 경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부펀드 ‘삼룩카지나’(Samruk-Kazyna)의 개혁 - 삼룩카지나는 경제의 핵심 부문 통제에 필요한 정도의 다수 지분만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국민 IPO’ 방식의 민영화 - 삼룩카지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투자자로 실행될 수 없는 중요 프로젝트에만 공동 투자자로 참여 가능 ○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국가의 운송 잠재력 강화 -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통과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 최대한 활용 - 악타우항에 컨테이너 허브 건설, 환카스피해 운송회랑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착수 및 이를 위한 글로벌 선도 물류 기업 유치 - 철도공사(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를 운송·물류기업으로 전환 - 2025년까지 지방을 포함한 양호한 자동차 도로 비율 95% 건설 ○ GDP의 5~6%를 생산하는 국가 경제구조에서 중요한 건설 부문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건설법 제정 - 2.5천 개 이상의 다양한 문서로 건설 활동을 규제하고 있어 부패를 조장하는 복잡하고 관료적인 시스템과 낡은 규범 개선 - 각 도시의 토지구획과 유틸리티망의 기능적 인터랙티브 지도 구축, 산업용 토지 구획 지도에는 실제 교통 및 기반시설 도식 포함 ○ 식량안보와 직결된 농업개발 문제 해결 - 생산 규모 증대 및 국내 농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필요 - 농업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장기적인 접근법 마련 및 보조금 지급과

	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 - 농업 발전을 위한 가장 전망 있는 농업 협동조합 설립 - 농업에 선진기술 솔루션 도입 필요 - 농경지 상태, 수자원, 관개 시스템 및 운송 접근성 등 산발적 정보에 대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	○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분야 개혁 - 자발적 의료보험 시스템 도입 - PPP 방법을 포함한 의료 인프라의 종합적인 개선 - 2년 내 의료시설이 없는 650개 마을에 산부인과 및 일반 진료 시설 구축 - 32개 지역 병원의 현대화 및 뇌졸중·수술·중환자실·재활센터 구축 - 원격의료 개발, 의사 양성 시스템 지속 개선, 의과대학 내 종합병원 및 클리닉 설립, 레지던트 교육 보조금 3년 내 70% 증액 ○ 국가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시스템의 개혁 - 2~6세의 절반 정도만 취학 전 교육을 받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 -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임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조치 - 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2025년까지 80만 개의 현대적 교육시설 설립하는 ‘편안한 학교’ 프로젝트 추진 -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모두 능통한 학생 양성 -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등록금 인상, 국가장학금을 30~100%까지 차등 지원 및 2~3% 저리 학자금 대출 제공 - 대학과 건설사 간 PPP를 통해 기숙사 건설 ○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 연금 시스템,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 - 월 최저임금을 6만 텡게에서 7만 텡게로 인상 - 최저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의 70%에서 최대 120%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까지 총 연금을 평균 27% 증가 - 여성의 연금 연령을 2028년까지 61세로 고정 - 육아휴직 지급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실업수당은 월 평균임금의 45%까지 인상 -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 2.5%의 우대 소액 대출 제도 출시 - 국부의 실질적인 혜택을 각 가정에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에게 국부펀드’ 프로그램 제안: 국부펀드 투자 수익의 50%를 어린이를 위한 특별 계좌에 예치하고 18세가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으며 주택 구입 및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삼룩카지나 순이익의 7%를 공공펀드 ‘카자흐스탄 할키나’(Қазақстан халқына)로 매년 이전 ○ 인적 잠재력 개발을 위해 해외의 재능있는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민정책의 도입 - 과학, 보건, 산업, IT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해 거주 허가 비자 제공 -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 기업인들은 10년 비자와 거주 허가 비

	자 제공
행정시스템 개편	○ 중앙정부 부처의 분권화 - 중앙정부의 권한을 각 산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각 부처에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여러 부처에 걸친 문제 해결에 집중,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을 소형기구로 전환 ○ 지방정부의 권한 대폭 확대 - 국가기관의 책임과 성과 제고를 위한 새로운 행정 개혁 지시 ○ 공무원 선발 및 해고 제도 개편 - 민간 전문가의 공무원 채용 기회 최대한 개방 및 인재풀 확대
법과 질서	○ 법치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의 신속한 개선 - 상급심 판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모든 판사의 동등한 지위 보장 - 법원장을 동료 판사들에 의한 선거로 선출 - 대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상원에 후보 제안 후 선출 방식 - 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고사법회의의 위상 강화 - 판사에 대한 행정적 압력 수단을 제거하여 재판에 권력기관의 영향력 근절 - 위법 행위에 대한 판사의 책임 강화, 판사의 책임 및 평가 제도 재검토 - 항소제도 개혁: 1심 재판으로 회귀 없이 본질에 따른 결정 필요 - 재산 분쟁에서 소송 금액에 따른 비율 대신 합리적 규모의 재판 수수료 책정 ○ 법 집행기관의 개혁 및 공공의 안전 강화 -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및 집단 폭동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살인, 폭력 등 강력 범죄, 가정폭력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합성마약 사용 및 비즈니스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 인터넷 및 전화 사기 위협을 식별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 및 분석 작업 강화 - 부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메커니즘 개발 ○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자료: Послани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Касым-Жомарта Ток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a³⁾을 활용하여 저자 정리

II. 카자흐스탄의 경제개혁 조치 관련 주요 분야 추진 동향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9월 국정연설 이후 9월 19일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3)

<http://president.kz/ru/poslanie-glavy-gosudarstva-kasym-zhomarta-tokaeva-narodu-kazahstana-181130> (검색일: 2023.01.26.)

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 대표들과 오찬 형식을 겸한 회의에서 금융 및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중요한 카자흐스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정치 및 경제 개혁은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여 민간부문과 국제 파트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부펀드 삼룩카지나(Samruk-Kazyna) 자산의 민영화에 따른 투자 기회, 에너지, 그린경제, 운송 및 물류, 농업 분야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잠재력에 대해 주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⁴⁾. 이러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언급은 9월 국정연설에서 밝힌 경제개혁의 방향과 일치하는 분야이며 향후 우리 정부와 재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삼룩카지나의 민영화, 그린에너지, 운송 및 물류, 농업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주요 정책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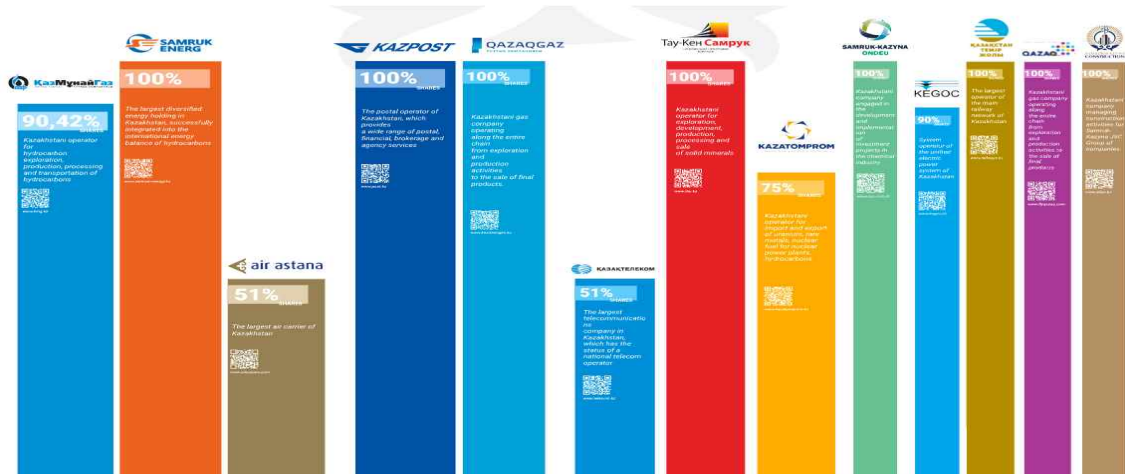
1. 국부펀드 삼룩카지나(Samruk-Kazyna) 민영화

2022년 1월 21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기업가들과 회의에서 국부펀드 삼룩카지나(Samruk-Kazyna)의 그간의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개혁을 지시하였다. 삼룩카지나의 공공 조달 구매와 관련하여 투명성 부족, 부풀려진 가격 등의 관행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펀드가 투명하고 효율적이지 않으면 관계를 단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사회 역할과 독립 이사의 참여가 대체로 형식적이었다고 비판하고 펀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국부펀드 삼룩카지나의 대표(CEO)인 사트카리예프(Satkaliyev)에게 개혁 임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펀드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스마일로프(Alikhan Smailov) 총리는 국부펀드 삼룩카지나 지주회사의 그룹의 일부인 약 40개 기업의 주식이 금년(2022년)과 내년(2023년)에 민영화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석유 및 가스 기업인 KazMunaiGas와 항공사 Air Astana의 IPO(기업공개)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⁵⁾.

4) Citi, Goldman Sachs, NASDAQ, Auerbach Grayson & Company LLP, Franklin Templeton, Brightlight Capital, AllianceBernstein, Jefferies Financial Group, Luxor Capital Group, Paine Schwartz Partners LLC 등 금융계 고위인사들이 참석하였다. “Касым-Жомарт Токаев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глобальных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https://www.akorda.kz/ru/kasym-zhomart-tokaev-provel-vstrechu-s-rukovoditelyami-globalnyh-finansovyh-institutov-1985831> (검색일: 2023.01.24.)

5) 국부펀드 Samruk-Kazyna의 유일한 주주는 카자흐스탄 정부이다. 국부펀드는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개발 기관, 국가 기업 및 기타 법인의 소유권을 관리하기 위해 2008년 만들어졌다. 2021년 3월 기준 국부펀드의 자산 가치가 674억 달러이다. “Доли к акких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мпаний будут приватизированы в 2022-2023 годах,” <https://ru.sputnik.kz/20220121/Doli-kakikh-kazakhstanskikh-kompaniy-budut-privatizirovany-v-2022-2023-godakh-19195306.html> (검색일: 2023.01.28.)

국부펀드 삼룩카지나 지주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의 지분 현황('21년 말 기준)



자료: Samruk-Kazyna Annual Report 2021⁶⁾

이후 3일만인 2022년 1월 24일 국부펀드 삼룩카지나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발표되었다. 삼룩카지나 이사회에서 승인된 이 문서에는 포트폴리오 회사(지주회사 산하의 그룹 및 자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즉, 자산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인사 정책, 공공조달 시스템, 국부펀드 및 포트폴리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방안, 비즈니스 지원,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배당 및 투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인적자본 개발 등의 변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 중에서 민영화와 관련된 행동계획의 내용으로는 1단계인 2022-2025년에 37개 그룹의 179개 회사를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 또는 SPO(Secondary Public Offering, 2차 공모)⁷⁾를 통해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즉, 대표적인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는 2022년 KazMunayGas(석유 및 가스공사)의 계열사 82개, 2022년 Air Astana(항공사)의 계열사 2개, 2023년 KEGOC(송전망공사)의 계열사 3개, 2023년 QazaqGaz(가스공사)의 계열사 9개, 2023~2024년 Samruk-Energo(에너지공사)의 계열사 20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계열사뿐만 아니라 KazMunayGas, AirAstana, Samruk-Energo, KEGOC, QazaqGaz, Temir-Zholy(철도공사) 등의 30개 대형 국영기업이 포함되었다⁸⁾. 또 경매 입찰을 통해 31개 그룹 59개사를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그 결과 2022~2025년에 5,000억 텡게 이상이 국부펀드로 유입될 것이다⁹⁾. 이러한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 8일 카자흐스탄의 최대 국영기업인 카즈무나이

6) https://sk.kz/investors/financial-performance/reports/annual_report_2021/en.php (검색일: 2023.0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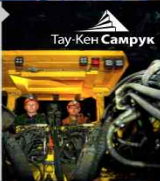
7) 기업 공개(IPO)를 마친 회사의 주식이 한 투자자로부터 다른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

8) “Более 250 компаний фонда «Самрук-Қазына» вошли в список приватизации,” https://www.inform.kz/ru/boleee-250-kompaniy-fonda-samruk-kazyna-voshli-v-spisok-privatizacii_a3987868 (검색일: 2023.01.28.)

9) 2022년 1월 24일 이사회 결정에 따른 삼룩카지나 개혁을 위한 실행계획의 110개 조치에 대한 상세 목록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Расширенная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во исполнение поручений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по вопросам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АО «Самрук-Қазына»,” <https://sk.kz/upload/iblock/64a/p2rrbuaww77m36h6faqw5d1a0kqy8v5y.pdf> (검색일: 2023.01.28.)

가스(KazMunayGas, KMG)의 기업공개(IPO)가 카자흐스탄 거래소(KASE)와 국제금융센터 ‘아스타나’ 거래소(AIX)에서 시작되었다. 기업공개(IPO)의 전체규모는 1,540억 텡게(3.3억 달러)이며, 최대 130,000명(95%가 카자흐스탄 국민)이 공모주를 청약하였다. 카자흐스탄 스마일로프 총리는 KazMunayGas의 IPO는 카자흐 주식시장에서 매우 큰 규모의 기업공개로 향후 금융시장 발전과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강조하였다. KazMunayGas의 상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치개혁과 공기업 민영화를 돕고, 투명한 책임경영과 투자문화 정착, 국민의 금융지식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025년까지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국영기업 대상 기업공개 (IPO)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¹⁰⁾.

국부펀드 삼룩카지나 지주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 및 성과

	NC KazMunayGas JSC		NAC Kazatomprom JSC		
	Oil and gas condensate production, min tons	2021 21,7	NET PROFIT (KZT bln) 2021 273,2	Uranium production, thous. tons	2021 183,5
	Oil transportation, min tons	2021 63,3	2020 273,2	Uranium sales, thous. tons	2021 140,8
	Oil refining,	2021 13,9	2020 215,6		
	NC QazaqGaz JSC		Samruk-Energo JSC		
	Gas transportation, bln m3	2021 22,5	NET PROFIT (KZT bln) 2021 266,5	Electricity generation, bln kWh	2021 35,6
	Natural gas sales, bln m3	2021 95,4	2020 400,2	Electricity exports, bln kWh	2021 0,6
				Coal sales, thous. tons	2021 44,7
	NC Kazakhstan Temir Zholy JSC		JSC «KEGOC»		
	Cargo turnover, mln tons/km	2021 233,3	NET PROFIT (KZT bln) 2021 16,2	Electricity transmission, bln kWh	2021 54,6
	Container transit, thous. TEU	2021 1 065,6	2020 16,2	Electricity dispatching, bln kWh	2021 105
	Passenger turnover, bln passengers/km	2021 9,5	2020 119,1	Electricity balancing, bln kWh	2021 205
	«Kazakhtelecom» JSC		Kazpost JSC		
	Fixed lines, thous. subscribers	2021 2 775	NET PROFIT (KZT bln) 2021 65,3	Postal and courier services, KZT bln	2021 146,4
	Fixed broadband access subscribers, thous. subscribers	2021 1 861	2020 65,3	Financial services, KZT bln	2021 1 144
	Cellular communication subscribers,	2021 14 544	2020 97,4	Agency services,	2021 36
	JSC «Air Astana»		Tau-Ken Samruk NMC JSC		
	Passengers carried, mln people	2021 6,6	NET PROFIT (KZT bln) 2021 38,7	Refined gold output, thous. ounces	2021 1 641,3
	Passenger load, %	2021 80	2020 15,5	Refined gold sales, thous. ounces	2021 1 683,8
	JSC «QAZAQ AIR»		Samruk-Kazyna Odeu LLP		
	Passengers carried, mln people	2021 569,8	NET PROFIT (KZT bln) 2021 13,5	BOPF film production, thous. tons	2021 9,4
	Passenger load, %	2021 77,7	2020 6,5	Glyphosphate formulation, tons	2021 196,9
				Sulphuric acid production, thous. tons	2021 194,5

10) KazMunayGas의 주식이 아스타나 국제거래소(AIX)와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KASE)에서 11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모가액 주당 8,406텡게(≈주당 17.78불)로 거래되었으며, 12월 8일부터는 시장가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Kazakhstan’s Largest IPO of KazMunayGas National Company Shares Kicks Off,” <https://astanatimes.com/2022/12/kazakhstans-largest-ipo-of-kazmunaygas-national-company-shares-kicks-off/> (검색일: 2023.01.29.)

자료: Samruk-Kazyna Annual Report 2021¹¹⁾

2. 환카스피해 국제운송회랑(TITR) 개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글로벌 물류 공급망 보장을 위한 국제 운송 통로 개발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최근 환카스피해 국제운송회랑(TITR: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일명 Middle Corridor)이 주목받고 있다. 서방 주도의 일련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세계시장에서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연방 영토를 우회하여 유럽과 아시아 간의 기능적이고 안전하며 통합된 화물 철도 네트워크의 개발이 담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등 TITR의 호스트 국가들은 모스크바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이후 이 육로 무역 채널을 따라 위치한 주요 통과 국가들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복합 지역 횡단 항로의 빠른 상업화를 실현함으로써 대륙 횡단 운송 기회의 확장을 달성하고 더 많은 국제 화물 운송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카자흐스탄 등 관련 국가의 정부는 TITR을 새로운 지정학적 및 경제적 현실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다국적 컨소시엄을 통해 장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관련 국가 및 그 외 국가들 간의 다자간 제도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중국-EU의 철도를 연결하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과 통로로서 TITR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이후 운송 및 물류 서비스에서 첨단기술 및 물리적 투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발 및 상업화 노력을 통해 이 유라시아 횡단 공급망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다자간 협력협정이 이미 체결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 카스피해 횡단 회랑의 화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및 조지아의 고위 관리들은 합작 투자(유라시아 공동 동맹) 설립을 선언했다. 이 3자간 협력 문서는 운송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TITR의 전반적인 정확도를 높이는 동기화된 국경 통과 및 세관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 물류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말에는 TITR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는 TITR에서 참가국의 환적 역량을 개선하고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4자간 선언문에 서명했다. 특히, 2022년 6월 말에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의 외무장관과 교통장관이 바쿠에서 정부간 워킹그룹 설립을 위한 3국 협력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TITR 개발을 위한 3국간 협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¹²⁾.

그리고 2022년 11월 25일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카스피해 횡단 연결성(Trans-Caspian Interconnectivity)에 관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교통 분야 장관 및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 우스켄바예프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은 2022년 10개월 동안 약 150만 톤의 화물이 TITR 항로인 악타우, 쿠르크 항구를 통해 운송되었으며 이는 작년보다 2배 많은 물량이며 이미 여러 차례 운송 가능 물량이 초과된 카스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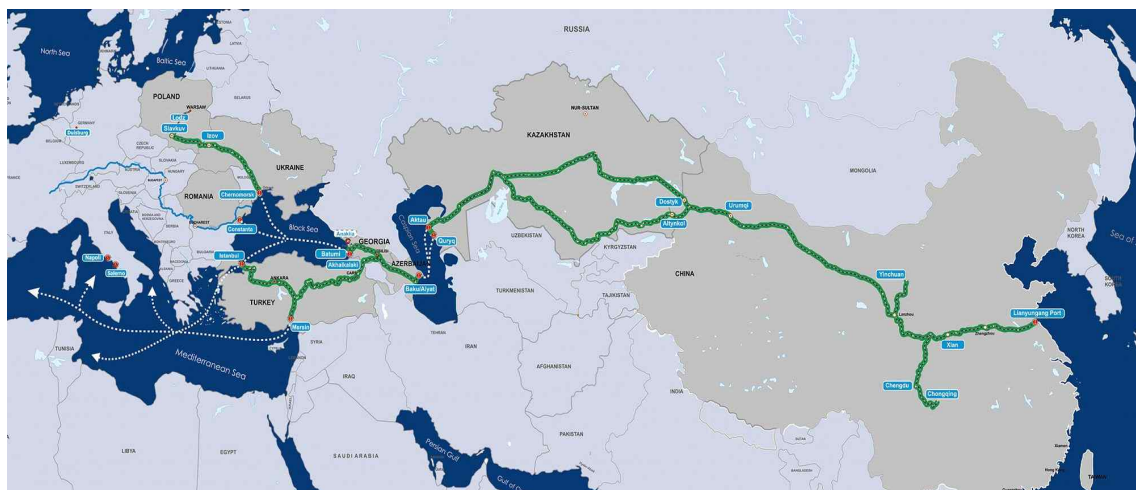
11) https://sk.kz/investors/financial-performance/reports/annual_report_2021/en.php (검색일: 2023.01.28.)

12) "The Rise of Trans-Caspian Routes amidst Russia's Isolation," <https://www.geopoliticalmonitor.com/russian-isolation-and-the-trans-caspian-international-transport-route/> (검색일: 2023.01.27.)

횡단 회랑의 추가 개발에 대한 구체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스켄바예프 장관은 유럽연합(EU)이 TITR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교통부 장관들에게 TITR 전체 경로와 관련, 단일 관세 부과와 단일 서비스 패키지 등을 지원하는 통합 운영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회의에서 '2022~2027년 중간 회랑(Middle Corridor) 개발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하였으며 동 프로젝트 시행 시 2025년까지 회랑을 따라 연간 운송물량을 최대 1,000만 톤까지 늘릴 예정이다¹³⁾. 한편, 중국도 카자흐스탄을 가로지르는 국제 운송회랑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2022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 계기에 양국 정부는 중국-유럽 및 TITR노선을 따라 철도 교통 협력을 확대키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¹⁴⁾.

중국,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거쳐 더 멀리 유럽 국가와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TITR는 여러 국가와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새로운 연결성과 대체 경로에서 큰 혜택을 누릴 국가는 카자흐스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항구 이용이 지연되고 있어 카자흐스탄 화물 운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국가와 지역에 무수한 경제적, 물류적 기회를 열어주는 이 중요한 지역 교통 회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외교적 대화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카스피해 국제운송회랑(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노선도



자료: The 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 starts from Southeast Asia and China, runs through Kazakhstan, the Caspian sea, Azerbaijan, Georgia and further to European countries¹⁵⁾

- 13) “Kazakhstan Seeks to Enhance Transit, Transport Potential of Caspian Region, Says Kazakh Foreign Minister,” <https://astanatimes.com/2022/11/kazakhstan-seeks-to-enhance-transit-transport-potential-of-caspian-region-says-kazakh-foreign-minister/> (검색일: 2023.01.28.)
- 14)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도로, 철도, 해로 네트워크의 일부가 카자흐스탄을 거쳐 카스피해와 코카서스를 가로지르는 것 구상이 있어 중국에게는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Казахстан, Азербайджан, Грузия и Турция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ных маршрутов через Каспийское море,”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press/news/details/466518?lang=ru> (검색일: 2023.01.28.)

TITR이 진정한 국제운송회랑으로 전환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는 두고 볼 일이다. 카스피해 양쪽에 항구가 있고 복잡한 철도 시스템 등 기반시설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국경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컨테이너를 더 빨리 이송하려면 코카서스 국가 및 튀르키예와 관세를 비롯한 더 많은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잘 알려진 국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학도 복잡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지역 국가들에게 TITR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새로운 인센티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린에너지 및 원자력 프로젝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규제 체계를 개선하여 투자자에 가장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할 것을 경제개혁의 방향 중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우선 분야 중 하나가 지하자원 개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6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그린경제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¹⁶⁾. 또한, 카자흐스탄은 광활한 대초원의 연중 내내 바람과 태양광이 풍부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2035년까지 6.5GW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천연 우라늄 추출 세계 1위 국가로서 원자력 연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을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¹⁷⁾.

2022년 6월 9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34차 외국인투자자협의회(Foreign Investors' Council)¹⁸⁾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의 탈탄소화를 강조하였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의 80%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특히, 전기 생산의 70%는 석탄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면서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수출기업들이 2026년부터 EU에 탄소세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재생 가능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균형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최소 15%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원자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과 제한된 가스 발전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은 지

15) <https://middlecorridor.com/en/route> (검색일: 2023.01.28.)

16)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лана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по переходу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 «зеленой экономике» на 2021-2030 годы,”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ecogeo/documents/details/27810?lang=ru> (검색일: 2023.01.28.)

17) “Президент выступил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аммита «Неде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Абу-Даби»,” <https://www.akorda.kz/ru/prezident-vystupil-na-ceremonii-otkrytiya-sammitya-nedelya-ustoychivogo-razvitiya-abu-dabi-1602818> (검색일: 2023.01.28.)

18)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외국인 투자 활동과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창구로 1998년 설립되었다. “Совет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https://fic.kz/ru> (검색일: 2023.01.29.)

속적인 전력생산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주장했다¹⁹⁾.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3년 1월 16일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원자력의 잠재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²⁰⁾.

2022년 10월 말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일의 그린에너지 개발 및 운영 기업인 SVEVIND Energy Group의 자회사인 HYRASIA ONE과 망기스타우(Mangystau)주에 그린수소 생산 및 유통 허브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400~500억 달러의 투자 규모로 망기스타우주의 풍력, 태양광을 활용하여 2032년부터 최대 2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세계 5대 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로서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그린에너지 개발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약 40GW(기가와트) 용량의 풍력 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연간 약 120TWh(테라와트시)의 재생에너지를 카스피해 연안의 전기 분해 산업단지에 공급될 것이다. 이 물 전기분해 생산시설의 총 용량은 20GW이며 연간 최대 200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2030년 예상되는 EU의 그린수소 수입 수요의 약 1/5에 해당하는 양이다²¹⁾.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생산기업인 Fortescue Future Industries와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²²⁾. 즉, 양측은 아티라우(Atyrau) 및 망기스타우 지역을 포함한 카자흐스탄의 여러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구현에 관한 기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 스마일프(Alikhan Smailov) 총리는 그린수소 생산은 대체 에너지원 개발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카자흐스탄은 그린수소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그린 수소 협약이 이행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15% 줄이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카자흐스탄은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구현하면 5~7년 내에 세계 최대의 수소에너지 공급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²³⁾.

4. 농업 개발

카자흐스탄은 북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북부지역은 대부분

19) “Касым-Жомарт Токаев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34-м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http://president.kz/ru/kasym-zhomart-tokaev-prinyal-uchastie-v-34-m-plenarnom-zasedanii-soveta-inostrannyh-investorov-954059> (검색일: 2023.01.29.)

20) “Президент выступил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аммита «Неде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Абу-Даби»,” <https://www.akorda.kz/ru/prezident-vystupil-na-ceremonii-otkrytiya-sammita-nedelya-ustoychivogo-razvitiya-abu-dabi-1602818> (검색일: 2023.01.28.)

21) “In Kazakhstan, Sbevind Plans to Develop a 20GW Green Hydrogen Project,” <https://fuelcellsworld.com/news/in-kazakhstan-sbevind-plans-to-develop-a-20-gw-green-hydrogen-project/> (검색일: 2023.01.29.)

22) “Kazakh Government Recaps Country’s Economic Performance in 2022,” <https://astanatimes.com/2022/12/kazakh-government-recaps-countrys-economic-performance-in-2022/> (검색일: 2023.01.28)

23) “Kazakhstan to Cooperate with Fortescue Company on Green Hydrogen,” <https://astanatimes.com/2022/11/kazakhstan-to-cooperate-with-fortescue-company-on-green-hydrogen/> (검색일: 2023.01.29.)

스텝지역으로 비옥한 토양과 다양한 기후로, 밀 등 곡물 재배가 활발하다. 카자흐스탄은 넓은 토지면적에 비해 경작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10% 이하로 비중이 낮은 편이며, 약 70%가 목초지이다. 연중 강수량은 북부 지역인 북카자흐스탄주(州), 악몰린스카야주, 코스타나이주와 남동부 지역인 알마티주, 동카자흐스탄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동 지역에서 농업이 발달하였다. 2020년 기준, 카자흐스탄 전체 농업생산에서 재배산업은 57.9%, 축산업은 41.5%, 농업서비스는 0.6%로, 곡물을 포함한 작물 생산은 카자흐스탄 농업의 주요 생산 분야이다. 지역별 자연조건에 따라 재배하는 작물 등 농업생산 품목이 다양하다. 북부지역은 밀을 비롯하여 귀리, 보리 등 곡물 생산이 주를 이루고, 채소나 해바라기, 담배와 같은 작물도 재배한다. 중서부와 남서부의 사막 및 반사막 지역은 목초지가 대부분으로 축산업이 발달했다. 주로 양, 말, 낙타 및 소 목축을 중심으로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총 농지 면적은 2,270만 헥타르(세계 5위)로 확인된다. 아울러, 1인당 경작지 이용 가능 면적은 1.5헥타르로 호주 다음으로 1인당 경작지 이용 가능 면적이 높은 나라이다. 2020년 곡물 재배면적은 전체 작물 재배면적 중 58%로 가장 높았고, 사료 곡물은 20%, 유지작물은 18%의 재배면적을 보였다. 곡물의 생산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17,669개의 농업 기업이 등록되어있으며, 그 중 대기업은 0.3%, 중기업은 1.5%, 소기업은 98.2%이다²⁴⁾.

<2020년 주요작물별 경작 면적 및 수확량>

구분	농지 면적(만ha)	생산규모(천톤)	1ha 당 수확량(kg)
곡물과 콩류	1,587	20,065	1,280
유지종자	290	2,556	950
채소류	163	4,340	26,590
과일류	101	2,425	23,880
감자	194	4,006	20,670

자료: 2021년 카자흐스탄 농업 정보(KOTRA)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농업 생산성은 헥타르당 1,150~1,160kg으로 매우 낮고²⁵⁾ 가공야채, 차 및 커피, 설탕, 생선 등 일부 품목의 국내 생산 비중이 50% 미만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생활과 실질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12월 12일 정부 확대 회의를 주재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식량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계절성에 따른 식량 가격의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건설이 필요하지만, 그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2021년 8.3만 톤 규모의 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6.4만 톤 규모가 건설되어 계획 대비 이행률이 77%였고, 2022년에는 상황이 개선되긴 했으나 9.8만 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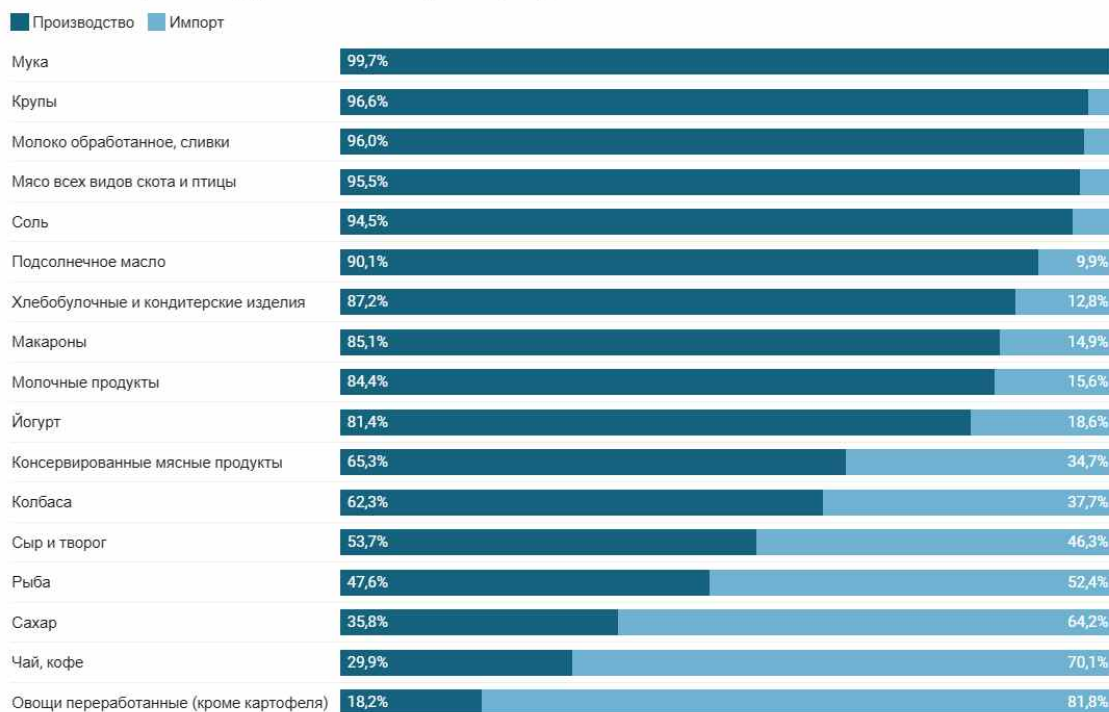
24) “2021년 카자흐스탄 농업 정보,”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pageNo=1&bbsGbn=01&bbsSn=243%2C403%2C254&pNttSn=192733&pStartDt=&pEndDt=&sSearchGbn=&sSearchVal=&pRegnCd=01&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viewType=&gbn=&hotClipGbn=&updtDt=2022-01-20+09%3A43%3A45 (검색일: 2023.01.29.)

25) “Сможет ли Казахстан обеспечить сво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https://www.lada.kz/another_news/99881-smozhet-li-kazahstan-obespechit-svoyu-prodovolstvennyu-bezopasnost.html (검색일: 2023.01.29)

대비 8.7만 톤의 저장시설이 완공되어 89.7%의 이행률을 보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국가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면서, 농공 단지 및 특히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활동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⁶⁾.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첫 명령으로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농촌 부흥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량안보 문제는 세계 의제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2022년 풍성한 곡물 수확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확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부들에게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현대 기술을 적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농산물 가공의 발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년 농공 단지 개발을 위한 연간 3,500억 텡게 이상의 보조금이 할당되었음에도 제품 생산의 증가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농공 단지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의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²⁷⁾는 것을 의미한다며 질책했다.

Баланс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импорт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Казахстане



자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Казахстана: «С голоду не умрем, но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взлетят»²⁸⁾

26)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вел расши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https://www.akorda.kz/ru/glava-gosudarstva-provel-rasshirennoe-zasedanie-pravitelstva-1211322> (검색일:2013.01.30.)

27) 농공 단지의 개발의 문제점은 이미 2022년 2월 8일 정부 확대 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농업 발전을 위해 2조 텡게 이상을 지원하였지만, 보조금 규모의 증가와 상관없이 농업 발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О чём говорил президент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https://informburo.kz/novosti/o-cyom-govoril-prezident-na-rassirennom-zasedanii-pravitelstva-polnyi-tekst?ysclid=ldik9z3ir2290207870> (검색일: 2023.01.29.)

28)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은 국가안보 보장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2022년 3월 31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2~2024년까지 식량안보 계획을 승인하였다. 예르볼 카라슈케예프(Yerbol Karashukeyev) 농업부 장관은 이 계획의 목적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식품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을 줄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식량안보의 3가지 기준 즉, 식량의 물리적 가용성, 식량의 경제적 가용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31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²⁹⁾.

식량의 물리적 가용성과 관련해서는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18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3년간 유지(식물성 기름 생산) 작물의 파종 면적을 300만 헥타르에서 350만 헥타르로, 감자는 20만 헥타르에서 21.5만 헥타르로, 사료 작물은 360만 헥타르에서 420만 헥타르로 늘려 작물 생산의 다양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3년간 대형 가축 수는 900만 마리, 소형 가축은 최대 2,010만 마리, 말은 최대 400만 마리로 증가시킬 것이다. 감자, 채소 및 과일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투자를 통해 2022년 저장용량을 98.3천 톤, 2023년에 104.5천 톤, 2024년에 19.6천 톤 증가시킬 것이다.

식량의 경제적 가용성과 관련해서는 가격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식품에 대한 소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6가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즉, 식품 가격 예측,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품 판매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 가격의 행정규제에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안정화 기금의 효과 평가, 새로운 형태의 농경지 거래를 통해 최소 25,000개의 농장을 창출하여 농촌 지역의 고용 증대, 새로운 관개 토지의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7가지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그중에는 검증된 수입 식품의 점유율을 80%까지 높이기 위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내 축산물 제품의 점유율을 2024년 80%까지 늘리기 위해 기존 위생시설 현대화 및 새로운 축산기업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³⁰⁾.

상기의 조치들의 결과 중 하나로 카자흐스탄은 2022년 약 2,28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여 10년 만에 사상 최대의 수확량을 기록했다. 그리고 약 520만 헥타르의 불용 농경지가 국가 소유로 반환되었으며 2023년에는 500만 헥타르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³¹⁾.

III. 개혁정책 평가 및 시사점

정치 및 경제 개혁을 통한 정치 시스템 개선과 안정성 확보, 투자환경 개선과 탈탄소화 등 산

<https://cabar.asia/ru/prodovolstvennaya-bezopasnost-kazahstana-s-golodu-ne-umrem-notseny-na-produkty-vzletyat?ysclid=ldiks2ru23209513201> (검색일: 2023.0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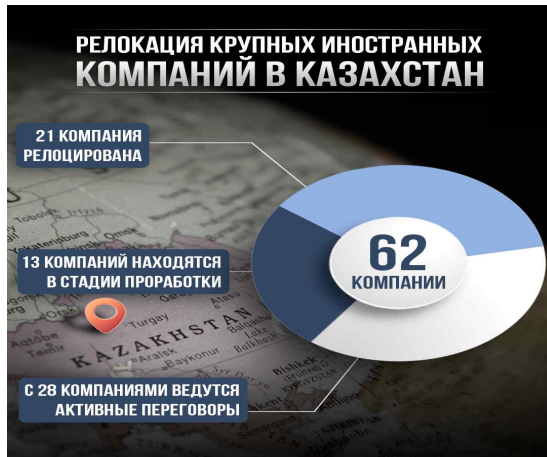
29) 2022~2024년까지 식량안보 계획의 전문은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лана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и Казахстан на 2022 - 2024 годы,” <https://adilet.zan.kz/rus/docs/P2200000178> (검색일: 2023.01.30.)

30) “Проект плана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азахстана до 2024 года одобрил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https://vlast.kz/novosti/49136-proekt-plana-prodovolstvennoj-bezopasnosti-kazahstana-do-2024-goda-odobrilo-pravitelstvo.html> (검색일: 2023.01.30.)

31) “Kazakh Government Recaps Country’s Economic Performance in 2022,” <https://astanatimes.com/2022/12/kazakh-government-recaps-countrys-economic-performance-in-2022/> (검색일: 2023.01.28)

업 다각화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상승 등 일부 부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카자흐스탄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21개의 외국 기업이 사무실과 생산을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전을 검토 중인 13개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다른 28개 외국 기업과 협상 중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해외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relocation)하기 위해 37개국 362개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 대상 목록에 포함시켰다³²⁾.



자료: Итоги 2022 года в Казахстане: реальный сектор экономики³³⁾

특히 미국의 우주항공, 자동제어, 특수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 Honeywell는 아티라우(Atyrau)에서 가스 분석기(gas analyzers) 생산을 시작했으며 알마티에서 조절기(control cabinets)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러시아 합작회사 Ural Motorcycles는 페트로파블로프스크(Petropavlovsk)에서 대형(heavy-class) 오토바이 생산을 현지화했으며 영국 회사 Weir Minerals는 알마티에서 펌핑 장비, 하이드로사이클론(hydrocyclones) 및 밸브를 조립하는 생산 센터를 열었다. 2022년 11월에는 중국 자동차 회사 Great Wall Motor(장성기차)가 알마티에 자동차 생산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 기업 Koppert는 바이오 비료와 식물보호제 생산공장을, 독일 Knauff는 석고보드 생산공장을 열 계획이다³⁴⁾.

실제 통계상으로도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 12월 30일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22년 9월까지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이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한 221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제조업이 36.9%(49억 달러) 증가해 투자를 주도하였고, 도소매업이 32.6%(38억 달러), 운송과 창고업이 20.1%(9.4억 달러), 광업이 11.7%(101억 달러)

32) “Коллегия МИД: Многовекторн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Казахстана доказывает свою альтернативность и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https://www.gov.kz/memleket/entities/mfa/press/news/details/488521?lang=ru> (검색일: 2023.0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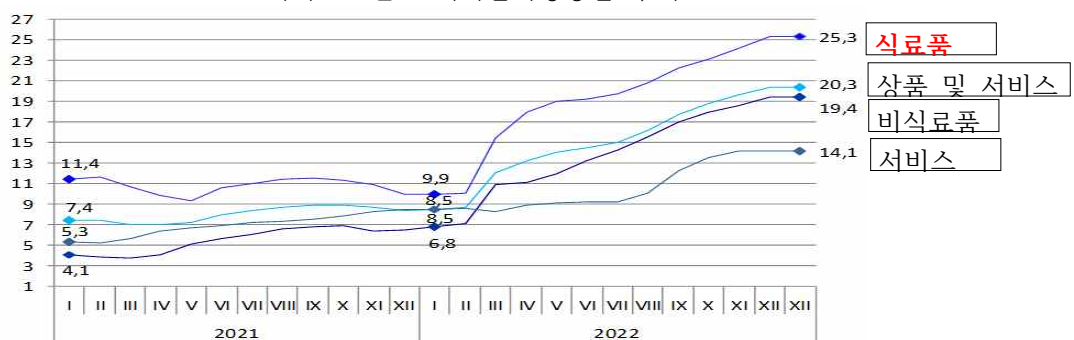
33) <https://primeminister.kz/ru/news/reviews/itogi-2022-goda-v-kazahstane-realnyy-sektor-ekonomiki-28112047?ysclid=ldik0zfmmb205185866> (검색일: 2023.01.28)

34) “Итоги 2022 года в Казахстане: реальный сектор экономики,” <https://primeminister.kz/ru/news/reviews/itogi-2022-goda-v-kazahstane-realnyy-sektor-ekonomiki-28112047?ysclid=ldik0zfmmb205185866> (검색일: 2023.01.28)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55억 달러), 미국(50억 달러), 스위스(26억 달러), 벨기에(13억 달러), 러시아(13억 달러), 한국(11억 달러), 중국(9.97억 달러), 프랑스(5.38억 달러) 순이며, 동시에 벨기에와 한국의 FDI 유입이 양자 관계에서 기록적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외교부 차관(Almas Aidarov)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증가한 동력은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라고 평가하였다³⁵⁾.

2022년 12월 2일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는 카자흐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인 BBB로 유지하고 향후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하였다. 국가신용등급 유지 사유로 양호한 재정 상태와 외부충격에 대응 가능한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을 꼽았다. Fitch에 따르면, 2021년 말 카자흐스탄의 외환보유고는 GDP 대비 37.8%로 비슷한 신용등급의 국가들 평균보다 훨씬 높다. 주요 수출 상품의 높은 가격과 2024년까지 텡기즈(Tengiz) 유전의 원유 생산 증가 등이 역내 지정학적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Fitch는 카자흐스탄의 2023년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중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³⁶⁾. 현재로서는 카자흐스탄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거시경제 안정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며 1월 소요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국가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가장 우선 과제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며 관리하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카자흐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75% 인상한 16.75%로 결정하고, 이는 고물가(22.11월 19.6%, 특히 식품 24.4%) 억제를 조치하면서도 역내 지정학적 긴장관계 등에 따른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 기대심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다³⁷⁾. 한편, 2023년 1월 13일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6.75%로 동결하면서 올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내외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안할 때, 현재의 높은 기준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³⁸⁾.

카자흐스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35) “Kazakhstan’s FDI Inflow Reaches \$22.1 Billion in Nine Months This Year,” <https://astanatimes.com/2022/12/kazakhstans-fdi-inflow-reaches-22-1-billion-in-nine-months-this-year/> (검색일: 2023.0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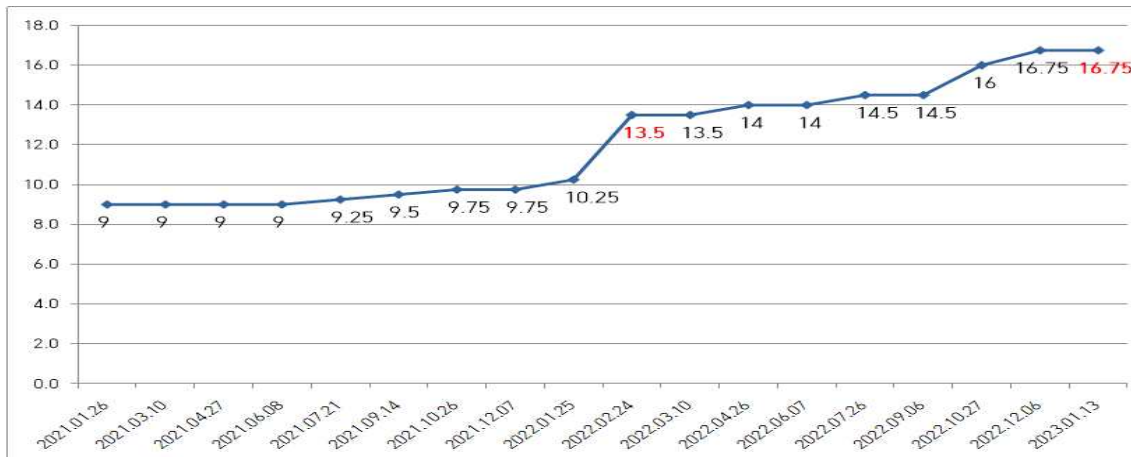
36) “Международное рейтинговое агентство Fitch Ratings подтвердило суверенный рейтинг Казахстана,” <https://www.nationalbank.kz/ru/news/informacionnye-soobshcheniya/14657> (검색일: 2023.01.30.)

37) “О повышении базовой ставки до 16,75%,” <https://www.nationalbank.kz/ru/news/press-relizy/14660> (검색일: 2023.01.30.)

38) “Заявление Председателя НБ РК Пирматова Г.О. О базовой ставк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анка,” <https://www.nationalbank.kz/ru/news/informacionnye-soobshcheniya/14792> (검색일: 2023.01.30.)

자료: Бюро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³⁹⁾

카자흐스탄 기준금리 추이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Казахстана) 자료 활용 저자 작성⁴⁰⁾

2022년 11월 23일 카자흐스탄 경제부 장관 쿠안티로프(Alibek Kuantyrov)도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발표(2022년 9월 21일) 이후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카자흐스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쿠안티로프 장관은 러시아인 유입으로 서비스 이용과 상품 구매 등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특히 러시아 IT 전문가들의 유입은 카자흐스탄 IT 역량 강화와 디지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유입된 러시아인 중 2/3인 약 20만 명이 카자흐스탄을 경유지로 이용하였으며 이미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⁴¹⁾.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경제개혁과 최근의 긍정적인 외국인 투자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협력이 제안적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중앙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 삼룩카지나가 소유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민영화 추진 계획과 기업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지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유럽 항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카스피해 횡단 항로를 잘 개발된 대체 통과 통로로 개발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모든 TITR 개시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39) “Инфляц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декабрь 2022г.),” <https://new.stat.gov.kz/ru/industries/economy/prices/publications/8124/> (검색일: 2023.01.30.)

40) “График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по базовой ставке 2015-2023,” <https://www.nationalbank.kz/ru/news/grafik-prinyatiya-resheniy-po-bazovoy-stavke/rubrics/1843> (검색일: 2023.01.30.)

41) “Как наплыв россиян отразился на экономике Казахстана, рассказали в МНЭ,” <https://www.nur.kz/politics/kazakhstan-economy/1998618-kak-naplyv-rossiyan-otrazilysya-na-ekonomike-kazahstana-rasskazali-v-mne/> (검색일: 2023.01.30.)

것이다. 이러한 카스피해 횡단 루트가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오랜 기간 구축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의 대안 공급 채널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우리 정부도 공급망 다변화 확보 차원에서 TITR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가능한 빨리 참여하여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지경·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긴밀한 정부 간 협력과 정치적 약속을 통해 동서 차원에서 중요한 국제적,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운송 회랑을 건설하고,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확인하고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글로벌 수소 기업 협의체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와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수소 흐름’(Global Hydrogen Flows)에 따르면, 청정 수소는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Co2 절감량의 1/5 이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 사용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Co2 배출량을 총 80기가톤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한,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이 상당한 양의 수소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요 수입국으로 한국, 일본, 유럽을 지목하였다⁴²⁾. 따라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포함하여 그린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카자흐스탄의 수소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농업개발 정책 및 관련 이슈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저장시설의 건설, 농산물 가공업 발전,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한기에도 야채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우리 기업이 오랜 경험과 강점을 가진 분야로서 카자흐스탄과 협력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42) “In Kazakhstan, Szevind Plans to Develop a 20GW Green Hydrogen Project,” <https://fuelcellsworld.com/news/in-kazakhstan-szevind-plans-to-develop-a-20-gw-green-hydrogen-project/> (검색일: 2023.01.29.)